

## 멕시코 칸쿤 2018년 상반기 사역보고서



### 한국, 멕시코 월드컵 축구 응원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멕시코 칸쿤 선교지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2018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취약한 안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아동들과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 선교센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부모님들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곳이 되었답니다.

멕시코선교를 위해 동역해 주신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상반기 사역을 보고드립니다

### ■ 방과후 교실, 수학캠프,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방과후 교실은 아동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의욕을 높여주었으며 더불어 학교성적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교실에서는 로봇 분야에 아동들이 관심이 많으며, 코딩교육을 통해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하며 아동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은 재미있는 놀이' 라는 주제로 실시한 수학캠프는 수학이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배우며 게임을 통해 수학은 어려운 것만이 아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교실에서는 창작동화를 그동안 배운 컴퓨터를 이용해 발표하는 아이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사교육을 통해서는 아동 교육에 대한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으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 지역의 안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코딩교실



수학



독서 교실



수학캠프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 급식지원, 스포츠교실, 위생용품지원, 성교육, 비타민지원

영양가 높은 급식과 스포츠 활동으로 많은 아동들의 건강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유급식 지원으로 저체중 아동의 건강이 향상되고 있으며 매일 복용하고 있는 종합비타민으로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교실(배구)와 태권도 교실로 아동들은 건강과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밖에 성교육과 위생교육, 그리고 위생용품 지원 등은 아동이 자신의 몸과 건강한 삶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급식지원



비타민 지원



태권도 교실

■ 생일파티, CDP DAY, 박물관 견학, 소그룹활동(축구부)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CDP센터에서 함께 지내고 특별활동에 참석하면서 아동들은 친구와 우정이 깊어지고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으며, 친구와의 사귀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그룹활동(축구부) 2018 HOPE CUP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12명의 아동들은 향후 CDP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들은 축구훈련뿐 아니라 영성, 그리고 성품 훈련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견학



CDP DAY



축구부

■ 주일학교, 성경지원, 성경공부, 성경암송대회

2018년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영적 활동을 강화하고 전체 아동에게 성경 배부, 매일 성경 읽기를 매주 교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암송대회 2회(잠언 3장, 시편 27편)와 성경 퀴즈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 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성경배부



성경공부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교회 건축부지 정리

■ 소득지원(병아리지원), 학부모위원회, 가로등 및 도로 보수 지원

가정의 소득지원을 위해 병아리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거리에 방치된 못을 수거하며 마을을 청소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병아리 지원



도로보수지원



마을청소

축구부 아동과 가정이야기

올해 저희 아동센터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10개국 아동들이 참가하는 2018 HOPE CUP 축구대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미에서는 저희 멕시코가, 남미에서는 볼리비아가 초청이 되었는데 각 대륙의 우수 아동센터 10개국에 초청되었습니다.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가 될 전 세계 빈민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 아동센터에서도 300여명 중 12명(12세~14 아동 10명과 15~17세 2명 남9명 여 3명)을 축구는 못해도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을 선발하여 1월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축구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부 아동들은 축구연습 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성경읽기, 성경암송, 방과후 교실등 CDP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이 무엇인지 배우고 배운 성품교육을 생활속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동들에게 모범이 되고, 학

교 성적이 향상되는 등 학교에서도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모님들의 지원이 없이는 HOPE CUP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모임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부모님들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지도자 부족으로 공동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쉽지가 않았는데 HOPE CUP 부모님들을 학부모 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와 실제적 필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회와 함께 우리 아동들이 자라나고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이 지역이 너무 위험해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았는데, 마을을 밝게 만드는 것을 의논하여 어둡고 필요한 가정들에 가로등을 나누고 설치하여 마을이 좀 더 환해지고 안전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역시 저희 선교사역과 HOPE CUP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지난 5월 5일 열렸던 HOPE CUP 출정식에 많은 지역 주민들과 간쿤 관계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나타날 변화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아동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이로 더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날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호프컵 출정식



호프컵 출전 아동 및 가족들

#### 기도제목

1. 금년부터 “멕시코에 주님의 평화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금년 방문한 단기 선교 청소년팀들과 우리 아동들이 두 도시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선교지도 조금은 안전해 졌지만 멕시코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2. 2018. 8/27~9/17까지 3주간 동안 12명의 아동들과 3명의 현지인 스텝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 올 수 있도록, 또한 아동센터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3. 이번 축구팀에서 탈락된 아동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에릭, 에밀, 루이스,야하이라)
4. 시작되는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으로 기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4.그동안 공부한 목회학 과정이 8/11이면 모두 마칩니다.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성광교회 가족들의 크신 사랑과 기도로 하늘마을이 잘 성장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쿤 하늘마을에서 민주식선교사 드림